

##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직렬매개 효과\*

박 응 임<sup>1)</sup>  
안동대학교

이 은 경<sup>2)</sup>  
이화사회과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과 이들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 389(남학생 160명, 여학생 229명,  $M_{age} = 21.19$ ,  $SE = 2.04$ )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 정신화,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대한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측정되었으며,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거부민감성을 거쳐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불안정적일수록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거부민감성을 높여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작동모델의 이해를 돕는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부모와 불안정 애착, 역기능적 정신화,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

\* 본 연구는 201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발표를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19년 안동대학교 연구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E-mail: leg6180@gmail.com)

##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면 분노감을 느끼며 이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우발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즉, 도심 한가운데에서 모르는 사람을 집단 폭행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일, 또는 아파트 외벽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며 작업자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잘라버린 일 등 한국사회가 분노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MBC 뉴스, 2018). 이처럼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할 경우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분노표현은 분노표출(anger-out)과 분노억제(anger-in)로 구분된다. 분노표출은 비난과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이나 극단적 모욕 등의 언어적·행동적 공격행동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분노억제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노를 자기 내부로 억압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불안, 우울,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김종은, 이윤주, 2013; 백윤미, 이봉건, 2013; 정해숙, 정남운, 2011; 최임정, 심해숙, 2010). 대학생의 경우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스스로 삶의 목표와 진로를 찾아가야 하고 학업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요구와 함께 경쟁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기도 한다(조혜영, 2013).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부적응을 낳게 하고 이는 분노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혜영, 심진숙, 2016). 특히 이 시기는 확장된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도 중요해지는데 이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고립감에 빠지게 되어 우정과 사랑을 형성하는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Erikson, 1965). 이 때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분노를 경험하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추미래, 2006). 이 같은 분노 경험은 다시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분노조절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분노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오래전부터 부모와의 애착이 주목받고 있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경우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발달하게 되어, 후에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것이며 바뀔 수 있다고 지각하게 된다. 이 경우 분노의 표현은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건설적인 분노로 표현된다. 또한 안정 애착의 경험은 정서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추구와 긍정적 인지의 활성화, 주의전환과 같은 적응적인 전략을 발달시켜 전생애에 걸쳐 정서조절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West, Rose, Spreng, & Adam, 2000). 그러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되고,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이에 분노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거절과 유기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분노의 표현은 파괴적 양식의 분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홍상희, 2017; Brodie, Goodall, Darling, & McVittie, 2019; Mikulincer, 199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정-저항 애착의 경우 분노 통제가 어려우며 분노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불안정-회피 애착을 경험하는 경우 분노에 대한 자각 수준이 낮고 도피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Bekendam, 1997). 이러한 현상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자신을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보고한 대학생들은 안정 애착 유형을 보인 청소년에 비해 분노와 적대감, 기질 분노, 집착형 분노, 두려움의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경, 양난미, 2016; 정정아, 홍혜영 2014; 이세정, 2004; 홍상희 2017; 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따라서 애착은 단순히 부모와 맺게 되는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청사진으로 작용하여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며, 특히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분노를 강하게 자주 경험하고 이를 오랫동안 표출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분노표현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들이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신화(mentalization)가 깊은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신화란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나 인지와 같은 심리적 상태를 헤아리는 과정으로 대인관계 행동을 정신상태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Allen, 2003; Fonagy & Target, 1997). 이는 자기 조직화와 정서조절의 핵심 기제로써,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서 발달하며, 성찰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Wallin, 2010). 즉,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신상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을 감정, 신념, 바램, 충동과 같은 내적 정신상태로 기능하는 개체로 보는 능력을 의미한다(Fonagy, 2003; Fonagy & Bateman, 2006; Rossouw & Fonagy, 2012). 이러한 정신화는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어린 유아들은 표상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신적 동등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 상태에 있게 된다. 이때 부모가 유아들이 보이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를 보여주고 반복적인 반응을 해주면 유아는 부모의 마음상태를 탐색해 보는 경험을 하고 점차적으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서서히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의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안정 애착을 출발점으로 내적작동모델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느낌, 신념을 정확히 자각하는 것, 타인의 느낌, 생각, 행동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신화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Fonagy & Bateman, 2016; Fonagy & Target, 1997). 그러나 영아가 부모의 적절한 정서 반응을 받지 못하여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내

적작동모델이 형성되고 정신화가 손상되어 자신과 타인의 정신작용을 정확하게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해 이후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정서조절, 충동조절, 공감과 같은 성공적인 대처경험을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Derryberry & Rothbart, 1997; Fonagy, Campbell, & Barmen, 2017). 또한 정신화의 실패는 타인의 정서 행동에 대한 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견디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상위인지 기능인 정신화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보다는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게 된다(허유림, 2018).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 거부민감성을 들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최근 이러한 현상들이 만연해지면서 젊은이들은 대학이나 회사에서 충고나 조언을 들을 때에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일본에서는 혼나는 것에 대한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19).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보복하려는 성향이 높았으며, 거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분노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은경, 2011; Ayduk, Gyurak, & Luerssen, 2008). 이처럼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거부를 경험하고 이를 분노로 발전시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타

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소현, 안효자, 2012; 홍상황, 2012; Downey, Feldman, & Ayduk, 2000; Purdie & Downey, 2000).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특히 배척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거절에 민감하고, 분노억압이라는 역기능적 조절 경향을 보인다(김진이, 김향숙, 2016; 류혜라, 2011; McKee, Roring, Winterowd, & Porras, 2012). 위와 같은 특징은 모두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부가 아닌 상황에서도 거부라고 지각하고 거부에 대한 대처행동에 노력을 쏟고 몰두하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역기능적 정신화는 거부민감성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는 거부민감성 모델을 통해 설명된다. 거부민감성 모델은 생애초기에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나 무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임정하, 최정원, 2019; Khaleque, Uddin, Hossain, Siddique, & Shirin, 2019). 그리고 거부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이 거부 단서에 대해 과잉반응하고 이에 대한 왜곡을 일으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모호한 단서들도 거절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한다. 따

라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와 외면을 경험한 개인은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용이나 지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이 작동하여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이복동, 2000; Downey & Feldman, 1996; Cavicchioli & Maffei, 2019).

다음으로 역기능적인 정신화도 거부민감성과 관련이 깊다. 정신화 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정서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유 있는 자세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같은 사건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Fonagy et al., 1997). 따라서 정신화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됨으로 거부에 대한 민감성 역시 약화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화 능력이 빈약한 경우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으로만 이해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의사소통에서 유연하지 못하며, 타인을 조종하기 위한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게 한다(Bateman & Fonagy, 2010). 그러므로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김용희, 2017). 따라서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역기능적인 정신화, 거부민감성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개인의 내적작동모델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내적작동모델의 경로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기제인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하는가?

**가설 1.**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3.**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신화 능력과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경상북도에 A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89(남학생 160[41.1%]명, 여학생 229[58.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19( $SE = 2.04$ )세로 나타났다. 이들 중 2학년이 112(28.%)명, 3학년이 108(27.7%)명, 1학년이 88(22.6%)명, 4학년이 81(20.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 전공 155(39.8%)명, 생명과학대학 전공 67(17.2%)명, 공과대학 전공 58(14.9%)명, 자연과학대학 전공 45(11.6%)명, 사범대학 전공이 33(8.5%)명, 인문예술 대학 전공이 30(7.7%)명 순이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73(18.8%)명,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316(81.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생활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185(47.6%)명, 부모님께 받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145(37.3%)명,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경우는 47(12.1%)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대학생의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역기능적인 정신화,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든 척도는 대학생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대학생의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 (IPPA-R)을 옥정(1998)이 수정·보완한 것 중 부모 애착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의사소통(9문항), 신뢰감(10문항), 소외(6문항)를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대학생들 스스로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hronbach's  $\alpha$ )는 .946으로 나타났다.

### 역기능적인 정신화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Peter Fonagy(1997, 2003)의 이론을 바탕으로 박세미(2016)가 개발한 정신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성찰(6문항),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5문항), 정서자각 실패(5문항), 경직된 사고(9문항)를 측정하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자각 실패와 경직된 사고에 대한 원점수는 그대로 사용하고 타인에 대한 성찰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확신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능력이 역기능적인 상태임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누가 내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해

야 할지 모르겠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대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생각, 감정, 태도 등에 관하여 가깝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863으로 나타났다.

###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박명진과 양난미(2017)의 한국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기분노(5문항), 예기불안(4문항), 과잉반응(4문항), 거부지각(3문항)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거부에 대해 민감한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SNS나 메신저로 연락을 했을 때 답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대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 및 대인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내적일치도는 .919로 나타났다.

### 부정적인 분노표현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pielberger과 Krasner,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덕웅과 전경규, 이장호(1997)가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와 응답편향성을 방지하

기 위한 분노조절(8문항)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해당하는 16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대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경험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내적일치도는 .830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먼저 2019년 9월 경상북도 A시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 후에 설문지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요시간과 문항의 이해 정도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예비조사 문항 그대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10월에 경상북도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조사하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보다 온라인 조사에서 더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이계오, 2000; 이윤석, 심규선, 조민희, 2018). 온라인 조사 결과 누락된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9부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조사도구의 신뢰도,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SPSS Process Macro Model 6의 직렬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때 Hayes(2013)는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제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따라 분석결과를 해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 III. 결과 및 해석

## 1. 기초분석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Kolmogorov-Smirnov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자료의 점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역기능적 정신화,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와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역기능적 정신화, 거부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과 정적상관( $r_s = .398 \sim .498,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 역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_s = .485 \sim .487, p < .001$ ).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도 부정적인 분노표현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555, p < .001$ ; 표 1). 즉,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은 역기능적 정신화 능력을 갖는 것, 거부에 대해 민감한 것,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 = 389)

|             | 1       | 2       | 3       | 4     |
|-------------|---------|---------|---------|-------|
| 1. 불안정 애착   | —       |         |         |       |
| 2. 역기능적 정신화 | .498*** | —       |         |       |
| 3. 거부민감성    | .408*** | .487*** | —       |       |
| 4. 부정적 분노표현 | .398*** | .485*** | .555*** | —     |
| M           | 2.50    | 2.390   | 2.641   | 2.592 |
| SD          | .532    | .410    | .745    | .531  |
| Skewness    | .205    | -.028   | -.274   | -.238 |
| Kurtosis    | -.066   | -.204   | -.327   | -.322 |

\*\*\* $p < .001$ .

그리고 역기능적 정신화 능력을 갖는 것은 거부에 대해 민감한 것,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하는 것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부에 대한 민감함은 높은 수준의 부정적 분노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 직렬매개효과 분석

대학생의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거쳐서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역기능적인 정신화를 제 1 매개변인으로, 거부민감성을 제 2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부정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397, p < .001$ ). 따라서 가설 1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변인을 투입한 결과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 = .122, p < .05$ ).

둘째,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에 미치는 영향은  $B = .384(p < .001)$

로, 역기능적 정신화가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B = .302(p < .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가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역기능적인 정신화의 매개효과  $B = .116$ 로 나타났다. 이 때 95% 신뢰구간의 하한값이 .057, 상한값이 .178로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의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거부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B = .308(p < .001)$ 로, 거부민감성이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B = .208(p < .001)$ 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086, 95\% \text{ CI } [.040, .136]$ ). 따라서 가설 3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불안정 애착이 역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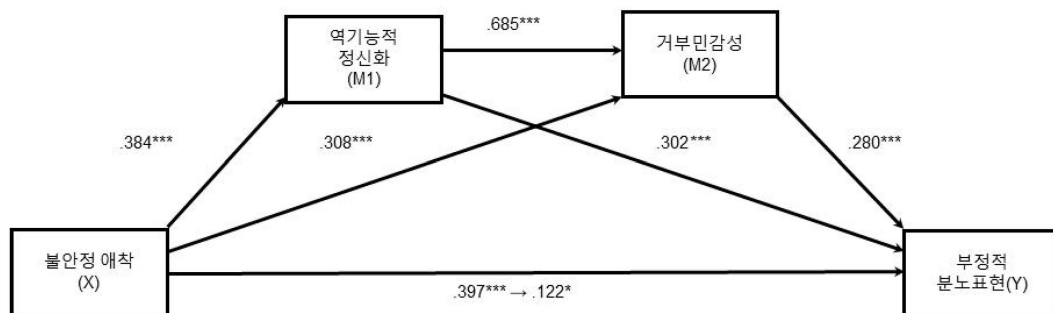
적인 정신화에 미치는 영향은  $B = .384(p < .001)$ ,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거부민감성에  $B = .685(p < .001)$ , 거부민감성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B = .280(p < .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렬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  $B = .074$ 로 나타났다. 이때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95% CI [.048, .104]),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는 직렬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4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신화 능력과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이

표 2.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직렬매개 효과 (N = 389)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t         | 95% CI |      | F (df)                 | R <sup>2</sup> |
|----------|----------|------|------|-----------|--------|------|------------------------|----------------|
|          |          |      |      |           | LL     | UL   |                        |                |
| 역기능적 정신화 | 불안정 애착   | .384 | .034 | 11.290*** | .132   | .451 | 127.460***<br>(1, 387) | .248           |
| 거부민감성    | 불안정 애착   | .308 | .041 | 4.389***  | .170   | .445 | 72.651***<br>(2, 386)  | .274           |
|          | 역기능적 정신화 | .685 | .070 | 5.243***  | .507   | .865 |                        |                |
| 부정적 분노표현 | 불안정 애착   | .122 | .047 | 2.572*    | .029   | .215 | 78.299***<br>(3, 385)  | .379           |
|          | 역기능적 정신화 | .302 | .064 | 4.697***  | .175   | .428 |                        |                |
|          | 거부민감성    | .280 | .034 | 8.315***  | .213   | .346 |                        |                |
| 부정적 분노표현 | 불안정 애착   | .397 | .047 | 8.527***  | .306   | .489 | 72.713***<br>(1, 387)  | .158           |

\*  $p < .05$ . \*\*\*  $p < .001$ .



\*  $p < .05$ , \*\*\*  $p < .001$ .

그림 1.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표 3.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직·간접효과 검증 (N = 389)

|                 | <i>B</i> | <i>SE</i> | <i>t</i> | 95% CI |      |
|-----------------|----------|-----------|----------|--------|------|
|                 |          |           |          | LL     | UL   |
| Total effect    | .397     | .047      | 8.527*** | .306   | .489 |
| Direct effect   | .122     | .047      | 2.572*   | .036   | .142 |
| Indirect effect |          |           |          |        |      |
| Total           | .275     | .037      |          | .208   | .351 |
| X → M1 → Y      | .116     | .031      |          | .057   | .178 |
| X → M2 → Y      | .086     | .024      |          | .040   | .136 |
| X → M1 → M2 → Y | .074     | .015      |          | .048   | .104 |

\*  $p < .05$ , \*\*\*  $p < .001$ .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과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영향을 더하면 총 설명량이 39.7%로 나타났다( $F = 78.299[3, 385]$ ,  $p < .001$ ; 표 2, 그림 1, 표 3 참조).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동시에 이들 변인들 사이에서 심리적 기제인 역기능적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즉,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신뢰감이 없으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분노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억제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분노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파괴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나경, 양난미, 2016; 성정아, 홍혜영, 2014; Mikulincer, 1998; Muris, et al., 2004).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부모가 자신을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과장되게 표출하거나 또는 불안한 상황에서 조차 부모가 위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지 않고 억제하는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생 때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이 여전히 자신의 정서를 과장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 역기능적인 정신화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것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형을 통해 정신화의 실패로 이어져 자신과 타인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성찰과 지각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서가 경직되고 왜곡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신화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분노를 과장하거나 억제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는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받지 못할 경우 자신과 타인의 정신작용을 표상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정신화가 손상된다고 주장하는 Derryberry와 Rothbart(1997)와 Fonagy와 Targett(1997)의 연구와 동시에 상위인지기능인 정신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을 밝힌 허유림(201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성찰이 어려워지며,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정서자각에 실패하고, 경

직된 사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인 정서표현 사이에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다시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경숙 등(2000)이 주장하는 거부민감성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임정하, 최정원, 2019; Khaleque, et al., 2019). 이는 생애초기에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거부나 무반응을 경험하여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이후에도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거부 단서에 대해 과잉 반응하고 왜곡을 일으켜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악의 없는 행동을 스스로가 거절 행동으로 부호화 정보처리하여 분노, 적대감, 질투 등과 같은 정서적 과잉반응이 유발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회피, 철회하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보복하려는 성향이 높았으며, 거부가 일어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분노사고를 하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한다

는 연구(손은경, 2011; Ayduk, et al., 2008)를 지지한다. 즉,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거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수록 분노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거나 억제하는데, 이 때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거부에 대해 과장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낙담하여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정신화 능력과 거부민감성이 직렬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를 지지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대학생의 정신화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정신화는 다시 부정적인 분노표현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대학생의 정신화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 (Derryberry & Rothbart, 1997; Fonagy & Bateman, 2016; Fonagy et al., 2017; Fonagy & Target, 1997)와 거부민감성이 부정적인 분노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이경숙 등 2000; 이복동, 2000; Cavicchioli & Maffei, 2019; Downey & Feldman, 1996)와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반응한다는 연구(김용희, 2017; Bateman & Fonagy, 2010; Fonagy & Target, 199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정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되는 것만으로 불안이 일어나 거부를 과잉으로 지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관계가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다시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것은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심리적 기제인 역기능적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상위인지 기능인 정신화에 실패하게 되어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하게 되며, 심지어 거부에 대한 모호한 단서조차도 거부로 지각하게 되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분노를 과장되게 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이라는 과장되고 억제되어 왜곡된 형태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알려주는 결과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인지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해 부정적인 분노표현을 불러일으키는 내적과정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역기능적인 정신화 능력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과 거부

민감성, 부정적인 분노표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결과가 의미하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확정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Fonagy(1991)는 초기 애착 경험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부모와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개인이 갖는 성찰적 태도 역시 성격과 대인관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경우라도 개인이 성찰을 통해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변화 가능한 정신화 능력이 거부민감성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더라도 대학생의 정신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탐색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종단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정신화 능력이 향상될 때 거부민감성과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역기능적인 정신화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부정적인 분노표현 방식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리적 기제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 형성되는 내적작동모델의 이해를 돕는 학문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대인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분노표현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적절한 분노표현을 돕는 상담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부모와의 애착, 정신화, 거부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등 부정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상담 및 조력 프로그램에도 위 연구모형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구혜영, 심진숙 (2016). 후기청소년의 분노조절 능력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5, 7-34.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용희 (2017). 대학생의 정신화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인애착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223-251.
- 김종은, 이윤주 (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3), 1551-1567.
- 김진이, 김향숙 (2016). 대학생의 배척민감성과 분노억압/분노조절의 관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87-103.
- 류혜라 (2011).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 조절의 중재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

- 학원.
- 문소현, 안효자 (2012).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분노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1), 33-43.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세미 (2016). 자기보고식 심리화(정신화)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윤미, 이봉건 (2013). 청소년기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표현양식과 공격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4), 103-121.
- 손은경 (2011). 어머니 애착과 거절민감성이 학령기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4.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계오 (2000). 컴퓨터 이용 통계조사의 현황과 전망. *조사연구* 1(2), 137-159.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세정 (2004). 성인의 애착유형에 따른 분노경험과 분노조절양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석, 심규선, 조민희 (2018).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 결과 비교: 자살 생각, 자살 계획 및 자살 시도 문항의 경우. *한국사회*, 19(2), 177-206.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 최정원 (2019). 부모와의 불안정애착이 청년기 연인 간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3), 51-69.
- 정혜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선일보 (2019. 03. 01). 일본 대학, 꾸중 못 건디는 신세대에 ‘야단 맞는법’ 강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11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0117.html)에서 3월 18일 인출
- 조혜영 (2013). 대학재학 후기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67-393.
- 추미래 (2006).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성 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표현에 대한 관계: Satir 역기능적 의사소통 모델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허유림 (2018).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분노반추를 통한 정신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홍상황 (2012). 한국판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초등상담연구*, 11(3), 351-369.
- 홍상희 (2017). 성인애착과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거부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BC 뉴스 (2018. 5. 4). 전종환의 빅 이슈] ‘광주 집단폭행’ 분노한 여론.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800/article/4598500\\_22625.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800/article/4598500_22625.html)에서 3월 16일 인출
- Allen, J. G. (2003). Mentaliz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7(2: Special Issue), 91-112.
-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Bateman, A., & Fonagy, P. (2010).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World psychiatry*, 9(1), 11-15.
- Bekendam, R. F. (1997). *Stoping in weak rock over solution cavities in the Hengelo Field, the Netherlands, and its expression in terms of surface subsidence*. SMRI spring 1997 meeting, Cracow Poland.
- Brodie, Z. P., Goodall, K., Darling, S., & McVittie, C. (2019). Attachment insecurity and disposi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anger regul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6(6), 1831-1852.
- Cavicchioli, M., & Maffei, C. (2019). Rejection sensit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cognitive affective personality system: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1(1), 1-12.
- Derryberry, D., & Rothbart, M.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33-652.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
- Downey, G., &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5-61.
- Erikson, E. H. (1965). *The challenge of youth*(Vol. 438). Doubleday Books.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2003). Psychoanalysis today. *World Psychiatry*, 2(2), 73-80.
- Fonagy, P., & Bateman, A. W.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11-430.
- Fonagy, P., & Bateman, A. W. (2016). Adversity, attachment, and mentalizing. *Comprehensive psychiatry*, 64, 59-66.
- Fonagy, P., Campbell, C., & Bateman, A. (2017). Mentalizing, attachment, and epistemic trust in group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67(2), 176-201.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4), 679-700.
- Fonagy, P., Target, M., Steele, M., Steele, H., Leigh, T., Levinson, A., & Kennedy, R. (1997). Morality, disruptive behavi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me and their relationship to security of attachment. In L. Atkinson & K. J. Zucker (Eds.),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p. 223-274). Guilford Press.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haleque, A., Uddin, M. K., Hossain, K. N., Siddique, M. N. E. A., & Shirin, A. (2019).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in Childhood Predic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ulthood. *Psychological Studies*, 64(4), 447-454.
- McKee, M., Roring, S., Winterrowd, C. & Porras, C. (2012).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self-schemas and insecure attachment styles with anger experience and expression among male batter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3), 2685-2702.
-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09.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3), 257-264.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ossouw, T. I., & Fonagy, P. (2012).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self-harm in adolesc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1(12), 1304-131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Wallin, D. (2010). 애착과 심리치료.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서울: 학지사.(원본 발간일, 2007)
- West, M., Rose, S., Spreng, S., & Adam, K. (2000). The Adolescent Unresolved Attachment Questionnaire: The assessment of perceptions of parental abdication of caregiving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4), 493-503.
- 1 차원고접수 : 2020. 04.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5.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Effects of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on  
Negative anger expression of College Student: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f Dysfunctional Mental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Park, Ung Im<sup>1)</sup>**

**Lee, Eun Gyoung<sup>2)</sup>**

<sup>1)</sup>Dept. of Family and Human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sup>2)</sup>Ewha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considers the direct effects of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on negative anger expression of college students. It also examines the indirect effects of dysfunctional mental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which mediate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and negative anger express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89 college students (male 160, female 229,  $M_{age} = 21.19$ ,  $SE = 2.04$ ), and data were analyzed to examine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among variables using PROCESS macro method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negative anger expression of college students. Secondly,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indirectly affected negative anger expression by mediating dysfunctional mental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leading to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n dysfunctional mental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mental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when analyzing the negative anger expressions of college students. This will lead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implications of the internal working model formed by parental attachment.

*Keywords: parental Insecure Attachment, Dysfunctional Mentalization, Rejection Sensitivity, Negative anger expression*